

집단교섭 협약서 의견접근

8.21(목) 14시 대원산업 평택공장에서 12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사 20명, 조합은 11개 사업장 47명이 참가했다.

마무리할 시간

이규선 지부장은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고민해 왔는데 오늘은 의견접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마다 파업을 배치하고 투쟁을 배치해야 그 때 마무리할 안이 나오는 것 올해도 반복돼서, 이런 교훈을 남기는 게 올바른가 고민”이라는 아쉬움을 담아 교섭을 열었다.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이사는 “지난 교섭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했다. 더 준비했으니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운 날씨에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답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마지막까지 밀당

6차 제시안에는 말레동현, 대한솔루션이 임금을 상향 제시했고, 에스제이엠, 우창정기, 대원산업은 전차와 같은 안, 계양전기, 디와이피, 모베이스전자, 현대케피코는 ‘추후 제시’다.

집단교섭 협약서 관련 전체 원안을 수용하되(기존 연도별 합의 전체를 협약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 - 후발 4사의 경우 집단교섭 합류 이전 합의를 전체 수용),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의 경우 각각 대한솔루션 2027년, 디와이피 2030년, 모베이스전자 2027년에 시행한다는 부속합의를 제시했다.(말레동현 기 시행)

지부 교섭위원들은 “시행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것은 교섭의 합의로 적절하지 않다”며 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사측은 “시행 연도까지 오는 것도 오래 고생해서 만든 안인데, 연도까지 표기하고 세부 진행은 각 사 노사에 맡겨달라”

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행시기도 몇 년 유예를 둔 것인데 그것마저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대중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시행일자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 사용자들이 잠깐 정회 후 상의하는 시간을 거쳐 세 사업장 모두 1월 1일로 시행일자를 명기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쳤다.

협약서 의견접근, 임금은 아직

이로써 2025년 지부 요구인 ‘집단교섭 기존합의의 협약화’에는 노사가 의견일치한 안을 만들었다. 1) 기존 합의를 모두 모아 한 편의 협약서로 작성하고, 2)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3개 사의 시행일자를 부속합의로 남기고, 3) 유사산 휴가와 출산휴가 관련 조항에 상향된 법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이전에는 특수한 처지의 사업장 소수의 임금 교섭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이를 추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일치를 했지만, 올해는 4개사가 추후 제시, 그 외에도 아직 임금 안이 의견일치 수준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의견일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교섭에서는 협약서에 의견접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각 사별 보충교섭에서 임금교섭을 빠르게 진행, 그 결과를 포함해 추후 의견일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기 교섭 일정은 사업장 교섭 상황에 따라 간사 간 소통하기로 했다.

처음과 끝 함께

이규선 지부장은 “협약서 원만하게 의견접근하도록 노력해 감사하다.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본다. 하지만 각 사에 임금 포함 남은 과제가 많다. 지부 집단교섭은 시작과 끝 함께하는 기풍으로, 문제 생기면 힘 모아서 또 싸울 수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말로 교섭을 마쳤다.

202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12차 교섭 회의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25년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및 지부요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접근함.

- 아 래 -

I. 지부 요구

1. 임금인상

회사명	금액	회사명	금액
계양전기	추후 제시	대원산업	월 기본급 30,000원
말레동현필터	월 기본급 30,000원	디와이피	추후 제시
대한솔루션	월 기본급 24,000원	신한발브공업	월 기본급 10,000원
에스케이엠	월 기본급 30,000원	모베이스전자	추후 제시
우창정기	월 기본급 15,000원	현대케피코	추후 제시

2. 화재발생 대비 : 원안 수용

- 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
- ③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

3. 경기지부 집단교섭 협약

- 원안수용

(단,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경우 아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 대한솔루션 : 2027년 1월 1일
- 디와이피 : 2030년 1월 1일
- 모베이스전자 : 2027년 1월 1일

II. 통일 요구

1. 작업중지권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조합은 1,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④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 ⑤ 회사는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III. 중앙교섭 요구

1. 기후위기 대응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아래 각호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 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
 - 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 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
 - 4.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IV. 2025년도 임금 인상 미합의 사업장은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서 추가 논의하고, 의견 접근된 내용을 이후 합의서에 삽입한다.

2025년 8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간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 사업장 감사)
김 유 진	이 상 인